

# 申在孝 「兎鼈歌」와 李海朝 「蟹主簿傳」 과의 比較研究

尹 用 植\*

## I. 序 論

판소리가 小說에서 나왔느냐 根源說話에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學界의 큰 宿題가 되어 왔다. 金台俊이 「朝鮮小說史」에서 文章體小說의 先行을 主張하고 金東旭 교수가 「韓國歌謠의 研究」에서 根源說話를 提起한 이래 많은 論考가 있어 왔으나 아직도 完全히 解決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문제를 念頭에 두고,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계 소설을 鼎密히 分析 比較하고자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差異點이 곧 이 문제를 푸는 關鍵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이 문제 해결에 接近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은 提供할 것이라고 期待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와 關聯하여 「申在孝 판소리 사설과 李海朝 판소리系 作品과의 比較 研究」라는 論考를 作成한 바 있는데<sup>1)</sup> 本稿는 이에 계속되는 作業이라 볼 수 있다. 申在孝의 판소리 辭說集에 傳하는 6마당의 판소리 中 4마당인 「春香歌」(男唱) 「沈晴歌」 「박타령」 「兎鼈歌」 등은 李海朝의 판소리系 作品 「獄中花」 「江上蓮」 「燕의 脚」 「蟹主簿傳」(兎의 肝) 등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異本들로서 필자는 上記 論文에서 이들 兩人의 3 作品씩을 比較 研究한 바 있다. 本稿에서는 나머지 한 作品, 「兎鼈歌」와

\* 國文學科同門(國文學專攻)

1) 拙稿, 申在孝 판소리 辭說과 李海朝 판소리系 作品과의 比較 研究, 國文學 研究 第56輯, 1982.

「繫主簿傳」(별주부전)을 上記 論文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考察하려는 것이다.<sup>2)</sup>

판소리의 起源 問題를 考究함에 있어서 큰 難題로 생각되는 것은, 「春香傳」을 例로 말하면, 그 수많은 異本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確實한 年代나 作者가 밝혀져 있지 않음은 勿論 그것이 판소리 사설이나 소설이냐 하는 문제도 確然히 區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完板本 「烈女春香守節歌」만도 論者의 便宜에 따라 때로는 小說定着本으로 때로는 판소리 사설本으로 취급되고 있는 實情이다. 「토끼傳」<sup>3)</sup>도 이에서 例外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確실한 판소리 사설本과 소설本과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考慮하여 本稿에서는 申在孝의 「兎籠歌」와 李海朝의 「繫主簿傳」을 資料로 擇하게 된 것이다. 申在孝의 판소리 사설은 그것이 그말 그대로 確실한 판소리의 사설임에 누구도 異議를 提起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李海朝의 作品들도 그것이 名唱들의 口述을 받아 쓴 記錄이 있어서<sup>4)</sup> 판소리 사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이냐 하는 점이 문제는 되겠으나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檢討하고자 하는 것이 本稿가 解決하고자 하는 課題의 하나이며, 本稿의 基本態度를 먼저 밝히면 一旦 그것을 판소리系 小說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이다.<sup>5)</sup> 그밖에 이 두 資料를 선택하게 된 理由는 다음과 같다.

- 2) 「兎籠歌」는 姜漢永 校注, 申在孝 판소리 辭說集(全), 民衆書館, 1971을, 「繫主簿傳」은 國立圖書館 所藏本인 李海朝 著作, 繫主簿傳(별주부전), 新舊書林, 1913을 대상으로 한다.
- 3) 「토끼傳」이란 名稱은 「토끼傳」 異本群 全體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다. 이후도 마찬가지다.
- 4) 全光鏞 교수의 考證에 依하면, 李海朝는 1910~1912년간에 그의 여러 신소설과 함께 판소리계 작품을 每日申報에 연재하였는데 그 중 「繫主簿傳」은 名唱 郭昌基, 沈正淳의 口述을 받아 刪正한 것이라고 한다. (韓國小說發達史下, 韓國文化史大系 V. 高大民研. p. 1195.
- 5) 판소리계 小說로 보는 이유는 拙稿, op. cit. pp. 5-7 참조. 다음에 제시되는 資料 선택의 理由中 一部는 上記 拙稿의 논의와 重複하나 論文體裁上 不可避한 것임.

첫째, 이 자료들은 많은 異本들 중에서 確實한 年代나 作者가 밝혀져 있다는 사실이다. 姜漢永 교수의 推定에 依하면 「兎籠歌」는 申在孝가 1864년에서 1872년 사이에 整理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6)</sup> 그리고 「繁主簿傳」은 李海朝가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에 每日申報에 發表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7)</sup> 따라서 이 자료들은 그 정리한 人物이나 年代가 確實히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이 자료들은 定着過程이 確實하다는 사실이다. 申在孝의 경우 누구의 唱本을 土臺로 했는가가 疑問이지만, 그의 「廣大歌」에서 八名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이들의 사설을 바탕으로 했으리라는 推定을 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李海朝의 경우는 前述한 바, 郭昌基, 沈正淳이라는 당시의 名唱들의 口述을 繁正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이 자료들은 모두 當代의 名唱들이 불렀던 판소리 사설을 정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 자료들 중에서 李海朝의 「繁主簿傳」<sup>8)</sup>은 지금까지 學界에 紹介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sup>9)</sup> 그리고 이것은 活字本 中에서 가장 刊

6) 姜漢永, op. cit, p. 33.

7) 全光鏞, Loc. cit.

8) 註②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 책은 國立圖書館 所藏本으로 大正 二年 (1913) 九月 二十五日자로 新舊書林에서 發行한 것이다. 책의 크기는 四六 寸보다 가로 세로 똑같이 1cm씩 작으며 표지에는 천연색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토끼가 거북을 타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제목은 漢字로 「繁主簿傳」이라 붓글씨로 쓰여 있고 그 옆에 한글로 글자마다에 '별주부전'이라고 토를 달았다. 本文은 古語가 섞인 한글체를 썼으며 漢字語의 一部에 漢字로 토를 달았으며 띄어쓰기는 비교적 충실히 했다. 대화의 경우는 話者의 身分을 토끼면 '(토)', 별주부면 '(별)'式으로 밝혔으나 빠뜨린 곳이 많았다. 全 109면으로 되었는데 89~96面이 缺張되어 있다.

9) 印權煥, 「토끼傳」 異本攷(亞細亞研究 29號, 高大亞研 1968), 趙東一, 「토끼傳(별주전)」의 構造와 諷刺(啓明論叢 8, 啓明大, 1972), 金大幸, 판소리 辭說의 構造의 特性(韓國詩歌의 構造研究, 三英社, 1979) 등의 글에서 취급되어 있지 않으며, 一般 文學史들에도 該本에 대한 言及은 없다. 個人 소장자 아닌 國立圖書館 소장임에도 지금까지 소개가 안 된 것은 의문이며 이 方面의 연구가 아직도 未盡한 面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行年代가 오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토끼傳」에 관한 研究는 세 갈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根源說話에 관한 연구<sup>11)</sup>, 둘째 異本에 관한 연구<sup>12)</sup>, 셋째 文學的 價値 探究<sup>13)</sup>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둘째와 셋째라고 하겠다. 異本이 끊임없이 發見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文學的 價値 探索은 또한 계속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本稿가 資料로 삼고 있는 李海朝의 「獐主簿傳」은 이런 뜻에서 意義가 있다고 보며, 特히 申在孝의 「兎鼈歌」와는 甲午更張이라는 開化의 基點에서 앞뒤로 약 25년씩 위치하여 단순히 19세기 20세기의 자료라는 意味를 넘어서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系 소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端緒를 提供할 것이라고 보아 本稿의 意義를 더해 준다고 하겠다.

## II. 作品의 具體的 比較

申在孝의 「兎鼈歌」와 李海朝의 「獐主簿傳」을 具體的으로 對比 檢討하기 위하여 우선 兩本의 줄거리부터 段落을 지어 보도록 하겠다. 이후의 논의를 편리하게 하고 작품의 플롯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段落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하였다.

### 1. 作品의 段落

兎 鼈 歌	獐 主 簿 傳
	序 詞
1) 南海 廣利王이 잔치끝에 得病.	1) 南海 廣利王이 우연 得病.
2) 仙官 나타나 兎肝 일러줌.	2) 王, 范相國 張使君 陸處士 招致.
10) 印權煥, op. cit. p. 88 참조. 그러나 1925년에 刊行된 世昌書館本 「獐主簿傳」과는 內容이 酷似하다.	
11) 金台俊,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pp. 131-134.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pp. 407-408. 印權煥, 「토끼傳」 根源說話研究, 亞細亞研究 25號, 高大亞研, 1967.	
12) 印權煥, op. cit.	
13) 增東一, op. cit. 金大幸, op. cit.	

- |  |  |
|--|--|
| <p>3) 滿朝百官 入侍. 魚族會議〔물고기辭說〕<sup>14)</sup></p> <p>4) 王, 左右丞相과 忠에 대해 문답.</p> <p>5) 臣下들 兎肝 求하는 일 서로 미룸.</p> <p>6) 王, 使者를 직접 指名하나 모두 不當.</p> <p>7) 主簿가 自願.</p> <p>8) 畫師, 全饋말에 따라 토끼畫像 그림〔토끼화상노래 극히 간략〕</p> <p>9) 主簿, 王 가족 친척과 이별</p> <p>10) 主簿, 陸地 到着〔名勝辭說〕</p> <p>11) 主簿, 남성이와 수작.</p> <p>12) 남성이의 안내로 毛族會議 구경〔집승사설〕</p> <p>13) 主簿, 토끼 만나 수작</p> <p>14) 主簿, 토끼 서로 자기 세계 자랑〔山林風月 辭說〕</p> <p>15) 主簿, 토끼 유혹하는데 成功(여우의 꾀방 있었음)</p> <p>16) 토끼, 龍宮 到着(자기 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음)</p> <p>17) 토끼, 龍王을 說得하는데 成功</p> <p>18) 토끼, 오히려 歡得받음.</p> <p>19) 토끼, 生還〔地名, 새 문답사설〕</p> <p>20) 主簿, 兎糞 가지고 歸還(王 治癒)</p> | <p>3) 伍子婿 나타나 范相國과 上座 다름.</p> <p>4) 伍子婿 兎肝 일러줌〔千病萬藥辭說〕</p> <p>5) 左 3)과 同</p> <p>6) 문어, 자라 서로 自願, 競爭함.</p> <p>7) 王, 토끼畫像 그리라 명령〔文房四友 辭說. 토끼화상 노래〕</p> <p>8) 王, 畫本 下賜〔漢詩 자라와 授受〕</p> <p>9) 左同</p> <p>10) 자라, 육지 向하던 中 名士들 만남〔名士辭說〕</p> <p>11) 자라, 着陸 後 여러 짐승 만남.</p> <p>12) 마지막으로 여호 만나 토끼 거처 알아냄.</p> <p>13) 左同</p> <p>14) 左同〔육지景概 辭說, 수궁景概 辭說〕</p> <p>15) 左同(너구리의 방해 있었음)</p> <p>16) 左同〔漢詩〕</p> <p>17) 左同</p> <p>18) 左同</p> <p>19) 左同</p> <p>20) 자라, 自決하려는 순간 화타 나타나 仙丹 줌.</p> |
|--|--|

## 2. 構成面

上記 段落表에 따라 兩本의 구성상 差異가 두드러진 대목만을 뽑아 그 디테일과 意味를 살펴 보겠다.

### (1) 序 頭

- 14) [ ]속은 삼입가요임.

申在孝本「兪斃歌」<sup>15)</sup>의 처음은 年記로 시작되고 있다. “至正 甲申歲에 南海 廣利王이 靈德殿 새로 짓고 卜日落成할 새……”<sup>16)</sup>라고 하면서 落成宴會의 장면이 나오는데, 李海朝本「繫主簿傳」<sup>17)</sup>은 “어화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국태민안하고 시화년풍 도흔새에……”<sup>18)</sup>라고 民謠調 내지 打令調의 序頭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어서 海洋描寫로 “대더 텃하에 물이 스희크고 스희에 물이만키로 각각 통왕이잇스니……”<sup>19)</sup>라고 하고 있어 「토끼傳」의 서두치고는 좀 特異하다고 하겠다. “어화 벗님네야 云云”하는 序詞는 李本 外의 異本에서는 發見할 수 없었다. 이러한 添記는 一旦 李海朝의 改作으로 보고 新小說式의 조그마한 變化로 보고자 한다.

## (2) 龍王의 得病

兩本의 段落 1)에서 나타나는 바, 申本에서는 龍王이 영덕전 낙성연을 베풀고 “二三日이 지나도록 질끈 놀아 주다”가 病이 나서 앓는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李本에서는 “우연득병하야 기지스경”하였다고 하고 있다. 놀다가 병이 나는 것과 우연히 병이 나는 것과는 그 創作意圖에서 큰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즉 作家意識이 처음부터 달랐다고 본다. 申本에서는 뒤의 毛族會議등의 장면에서 現實 批判意識이 强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도 王에 대한 多少의 그러한 意識이 나타났다고 보겠다. 放蕩하게 즐기면서 百姓들을 보살피지 않는 王을 批判하되 직접할 수 없으므로 龍王을 밀어다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批判意識은 「토끼傳」의 初期本보다는 後期本에 와서 添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絶對者, 王에 대한 批判意識은 적어도 先代보다는 人智가 發達해 간 後代에 일어날 可能性이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

15) 이후는 申在孝本「兪斃歌」를 「申本」으로 略稱함.

16) 申本, p. 253. 이후 申本에서의 인용은 姜漢永 교수의 현대어역本으로 한다.

17) 이후 李海朝本「繫主簿傳」은 「李本」으로 略稱함.

18) 李本, p. 1. 띄어쓰기는 원문대로임. 이하도 같음.

19) *ibid.*

기傳)의 異本 中, 龍王의 得病을 ‘偶然’보다 ‘享樂’에다 原因을 두고 있는 系列本이 後代本일 可能性이 더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印權煥 교수는 그의 「토끼傳 異本攷」에서 病因을 밝히고 있는 異本이 先行系列이라 하고 그 理由로 “후에 내려오면서 發病의 原因이 削除된 듯하다.”<sup>20)</sup>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見解는 傳授者들의 記憶力에 바탕을 두고 한 말인 듯하나 可能性이 오히려 희박한 것으로 思料된다.<sup>21)</sup>

(3) 醫員의 來診

{ 申本 단락 2)~仙官  
李本 단락 2) 3) 4)~伍子婿 外 3人

申本에서는 王의 得病 後 우연히 仙官이 나타나 치료법을 일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李本에서는 臣下(鯉魚)의 건의에 따라 ‘군조호걸’ 세 사람을 청하여 ‘명의’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申本의 해당 장면을 보면, “一國이 遑遑하여 하늘게 祝手터니, 하루는 五色彩雲 水宮을 뒤덮으며 奇異한 좋은 香내 四面으로 일어나며, 한 仙官이 들어올 제…”(p. 253)라고 하여 자못 신비하고 몽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李本에서는, “흔신히출반주왈 신이듯스오니 월나라 범상국과 당나라 장스군과 오나라 룡쳐스는 세상의 군조호걸이라 이 세사람을 청하야못조오면 명의툴가히구호오리니…”(p. 2)라고 하여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仙官의 ‘우연의 등장’과 ‘건의에 의한 등장’을 놓고 볼 때, 多少나마 李本이 必然性 있는 構成法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李本에서는 이 대목이 훨씬 길게 申本보다 확대 부연되어 있다.

(4) 兎肝 求하는 일에 대한 臣下들의 態度

{ 申本 단락 5) 6) 7)~서로 미룸.  
李本 단락 6)~서로 自願함.

20) 印權煥, op. cit. p. 74.

21) 여기서 留意해야 할 것은 李海朝가 刪正한 名唱들의 口述은 또 누구의 傳授를 받아 이루어졌었던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申本에서는 먼저 文臣이 武臣을 薦擧하면 武臣은 이를 받아 文臣에게 마구 공격을 한다. 이리하여 文臣과 武臣은 甲論乙駁을 하게 되면 王은 이를 仲裁하려 自身이 몇 사람(물고기)을 指名해 보지만 모두 당치. 앓음을 臣下로부터 듣는다. 이러한 中에 平素에 蔑視만 받으며 살아오던 主簿가 自願하고 나선다. 주위가 모두 놀라고 王 자신도 疑心을 가지나 主簿의 忠誠스런 言辯에 감동하여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게 된다. 여기서 主簿의 능란한 구변을 한 대목 보면 이러하다.

忠誠智略 말 잘하기 方寸間에 들었으니 外貌로 알 수 없고, 外貌로 보온대도 夸父가 잘 걸어서 해를 쫓아갔사오되 그 발이 들뿐인데 臣의 발은 넷이옵고, 孟賁이 힘세어 九鼎을 들었으되 목 감추지 못하는데 臣은 목을 出入하고, 대가리가 뾰족하니 白起의 銳頭옵고, 허리가 넓었으니 伍子婿의 十圍옵고, 콧굴이 좁사오니 意思是 넉넉하고, 본이 아니 퍼지오니 口辯은 있사오니, 肝腦塗地할 지라도 토끼 잡아 올 테오니, 토끼의 생긴 形容 仔細 그려 주옵소서.<sup>22)</sup>

한편 李本에서는 申本의 경우와는 正反對의 현상이 벌어진다. 문어와 자라가 있는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기를 경쟁한다. 경쟁 끝에 자라가 勝利하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말에서는 지극한 충성심 그대로를 느끼게 해 준다. 또 대단히 博學하고 諧謔的이기도 하다. 여기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다.

문어——자라의 말을듯고 분기더발하야 두눈을부릅쓰고 여뿔갈내드리로 영버티고 점붉은더골이를 설설흔들면서 벽력又치 소리를질너더애왈 요마흔 별췌부야 네내말올드러보아라 강보에싸힌으히 어문올롱떨하니 범모르는 할로개아지라 네괴로 해아리면 태산이가부압도다 네모양올 볼작시면 괴괴망측가쇼롭다 얼굴은 스민이넉적하야 나무점시모양이라 더티도록 적은속에 무슨의스——드러스라 세상사물들이 너곳모면 두손으로 움켜다가 활눈물에 솟구쳐쏟여내니 자라당별미로다 부자들이 먹을지니 무슨슈로 살아날고 자라더담후되 너는 우물밧헤 개고리오 확철에노논고기라 단지기일이오 미지기이로다 서자의 겸인지용도 검광에죽어있고 초패왕의괴개세도 히하성에 패하엿느니 우직흔네용뎡이 내지혜로 당홀쇼냐 나의 직조드러보라 만경창파김흔물에 눌리져서 청년의구름쓰듯 광풍

22) 申本, p. 267.



의 낙엽쓰듯…… 남모르게 변화무궁 룩디에 당도할야 목기를 만나면 잡을묘계 신통하다 광무군리과거의 초패왕을유인하든 슈단으로 간사호 저목기를 잡아오 리나썸이라 네어이 나의지모묘락을 짜로리오

실로 말의 盛觀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申本에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대목에서 現實 批判意識이 強하게 나타났다고 보겠다. 朝鮮 後期 社會에서, 無能하고 蒙昧했던 王이나 無事와 自身の 利益 追求에만 血眼이 되었던 奸臣輩들을 諷刺했다고 볼 수 있겠다. 淸本에서는 이러한 풍자보다는 忠誠心에 대한 勸告나 獎勵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後述하겠지만 여기서 兩本이 나타내고 있는 主題上의 差異點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5) 陸地 도착 前後의 일

- { 申本 단락 10)~陸地 到着 後 名勝地 列舉
- { 李本 단락 10)~陸地 到着 前 名士 邂逅

申本에서는 主簿가 토끼 齋本을 지나고 陸地를 向할 때 바다의 風景 묘사는 省略하고 있는데 李本에서는 이 대목이 길게 敷衍되어 있다. 그 代身 申本에서는 陸地에 到着한 後 中國의 名勝地를 두루 늘어 놓고 있다. 約 40 여곳의 名勝地가 소개 되는데 모두 中國의 것이요, 우리의 것은 하나도 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종류는 다르나 本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李本에서는 자라가 바다위에서 여러 名士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歷代 中國의 英雄豪傑들이요, 우리나라 人物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13人的 名士 中 女人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魏女舜妻, 娥皇女英) 이는 자라의 忠臣의 行爲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두 女人은 貞節의 化身으로서 意味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라의 忠誠스런 勇猛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는 「沈淸歌」를 부르던 廣大가 「토끼傳」을 부를 때에도 그것을 그대로 移入해 부

23) 李本, pp. 16-17.

른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sup>24)</sup>

판소리의 積層文學의 屬性이 드러난 대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점 李海朝도 看過해 버린 것 같다. 速斷일 수 있겠으나, 李海朝는 郭昌基, 沈正淳 兩名唱의 口述을 刪正할 때, 後에 詳述하겠지만 別로 加筆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

이 장면에서는 兩本 구성상의 두드러진 우열의 차는 느껴지지 않으나 다만 자라는 忠臣의 입장에서 生命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처지임으로 명승보다는 명사가 어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 (6) 毛族會議와 토끼의 만남

1 申本 단락 12) ~ 毛族會議 끝에 토끼를 따라가 만난.

2 李本 단락 11, 12) ~ 毛族會議는 省略되고 여우가 일러주어 만남.

申本에 등장하는 毛族會議에는 짐승 20種이 열거되고 있다. 들이 보먼, 기린, 코끼리, 산자, 곰, 원숭이, 호랑이, 사슴, 노루, 토끼, 삼, 여우, 쥐, 다람쥐,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오소리, 족제비, 조아기, 두꺼비<sup>25)</sup> 등이다. 이들이 山君인 호랑이를 主席으로 하여 會議를 하면서 주고 받는 말은 그대로 腐敗했던 朝鮮 後期 社會의 御前會議에서 君臣이 주고 받는 말인 듯하다. 特히 사냥개는 政治權力의 走狗를, 여우는 阿諛輩를, 곰은 忠直한 臣下를 代辯하고 있다고 볼 만하다.

주부는 이러한 會議를 다 구경하고 거기 참석했던 토끼의 뒤를 따라가서 만난다.

한편 李本에서는 毛族會議는 나오지 않고 着陸 後 소, 개, 수달, 사슴, 호랑이, 여우 등을 차례로 만나 수작을 벌인다. 이들 중 여우로부터 토끼의 거처를 알아 내게 되어 다래덤불 우거진 곳에 찾아가 만난다.

24) 完板本「沈清傳」(金東旭, 金泰俊 共編, 景印解說古小說選, 開文社, 1978, pp. 198下—199上). 申在孝本「沈清歌」李海朝本「江山蓮」등에도 심청이 印塘水에 投身後 또는 龍宮에서 印塘水에 나올 때, 例로 두 女人이 나온다. 이 두 女人 外의 人物들도 거의 비슷하다.

25) 두꺼비는 털이 없는 동물인데 여기 등장시킨 것은 作者의 錯覺이라고 본다. '털 가진 귀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구성상의 兩本의 차이는 역시 毛族會議의 有無이겠는데, 판소리가 追求하는 바 喜劇美의 創出이 판소리의 주요한 特性이라면 이 대목에서는 申本의 構成法이 李本보다도 優越하다고 하겠다.

### (7) 結 末

- { 申本 단락 20)~兎糞 가지고 歸還
- { 李本 단락 20)~自決하려는데 화타 나타나 仙丹 줌

申本에서는 兎糞으로써 龍의 病이 낫고 主簿도 忠臣이 되어 결국 happy end로 結末을 짓고 있는데 李本에서도 龍王의 病이 나았다는 句節은 없으나 華佗가 나타나 仙藥을 주었으니 마찬가지로 happy end로 끝맺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토끼傳」의 異本 中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sup>26)</sup>

申本에서는 陸地에 당도한 토끼가 同族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너구리 아재 平安하오. 오소리 兄님 잘 있던가, 별슬 생각 부디 말고 移徙 생각 부디 마소. 벼슬하면 몸 위텝고. 他關가면 賤待받네 몸 익은 靑山 徙風月 낮익은 우리 동무 晝夜相從 즐겨 노세”(p. 321) 이것은 매우 敎訓의인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벼슬을 바라거나 離鄉을 꿈꾸는 人間들에 대한 警鍾과 깨달음을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李本에서는 토끼의 奸計에 속은 자라가, “내 충성이 부족하야 특기의 속인바히 되었스니 이를 장차어지 하리오……출하리 이싸에서 죽음만又지 못하도다”하고는 “머리를 들어 바회돌을 향하야 부디치려 하더니”(p. 108) 라고 하고 있어 至極한 忠誠心을 마지막 대목에서도 強調했다고 보겠다. 至極한 忠誠心은 결국 뜻을 이루게 한다는, 忠誠心의 鼓吹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 3. 人物 性格面

申本과 李本의 각 단락을 對比 檢討한 것을 토대로 登場人物들의 性

26) 一 養本「鰲主簿傳」, 가람本「鰲兎歌」, 李嶽本「鰲兎傳」 등에서는 자라가 돌아가지 못하여 용왕이 죽거나, 빈손으로 돌아간 자라를 귀양 보내고 용

格이 兩本에서 두드러지게 差異가 나는 대목을 中心으로 본항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主 簿

申本의 단락 7)과 李本의 단락 6)에 나타나는 바 주부가 使臣으로 뽑히기까지의 과정에서 兩本이 多少 差가 난다. 申本에서는 고래, 민어, 갈따꾸, 모치 등이 서로 얽혀 남은 천거하되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는渦中에서 憤然히 主簿가 自願하면서 자기는 祖上 代代의 忠臣의 後裔로서 主簿의 벼슬로 만족하며 自己의 肝으로써 王의 치유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내놓겠다며 兎肝은 자기가 기어이 구하겠다고는 말을 하여 주위 모든 臣下들을 놀라게 한다. 李本에서는 자라와 문어가 일대 言爭을 벌이는 대목이 主가 되어 있는데 그 싸움이 아주 熾烈하다. 難兄難弟의 能辯으로써 競爭을 벌이다가 결국 자라의 승리가 결정 되는데, 자라는 어려운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 되겠다. 그러니까 兩本에서의 主簿의 忠誠心 表現을 申本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自願함으로써 忠誠心이 돌보이게 하는 方法을 썼다면 李本에서는 어려운 競爭에서 이기게 함으로써 돌보이게 하는 方法을 썼다고 하겠다. 주부의 지극한 忠誠心을 表現하려는 作家의 의도는 兩本이 一致하나 다만 그 表現 方法에 있어서 差異가 드러났다고 하겠다. 그러나 兩本이 共히 주부의 忠誠心 창조에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주부가 토끼를 誘惑하는 단락 20)에서 兩本이 差가 난다. 먼저 申本에서의 유혹 方法을 살펴보면 주부가 토끼를 만나 몇 마디의 對話 끝에 “…龍王의 分付 모시어 王佐之才 求하기로…滿座를 다 보아도 霸王之輔는 非熊非豹라 先生 하나뿐이기로…나를 따라 가사이다”(p. 289)해놓고 토끼의 山中生活이 얼마나 괴롭고 위험한가를 하나하나 들어 지적하고 反面에 水中生活은 얼마나 즐겁고 富貴榮華로 가득한가

왕도 憤死하거나 해서 자라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 결말을 짓고 있다고 하겠다.

를 說得力 있게 그려 놓고 있는 式이다. 그러니까 먼저 가자는 말을 해 놓고 가서 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 說得하는 이른바 演繹法을 썼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李本에서는 이와는 反對로, 자라가 먼저 가자는 말은 一切 하지 않고 山中生活의 어렵고 위태함과 水國生活의 즐거움과 벼슬생활을 강조하여 토끼의 입에서 저절로 水國에 가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李本에서는 이른바 歸納法을 썼다고 볼 수 있겠다.

兩本에서 자라가 토끼를 誘引하는 데에 쓴 자라의 達辯은 共通되나 그 手法面에서는 역시 差異가 나타났다고 보겠다. 그러나 양본 共히 주부의 달변적 성품을 창조하는데에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겠다.

이러한 자라의 뛰어난 智略과 口辯이 토끼가 龍王을 說服시키는 장면에서는 아주 無力해지는 것이다. 이점은 兩本이 一致한다. 토끼의 能辯이 계속되는 동안 申本에서는 主簿의 抗辯이 한마디쯤 插入되나 곧 이는 토끼의 공격에 묵묵부답이 되는 것이다. 이른바 판소리의 積層文學의 特性이 이 대목에서도 나타났다고 하겠다. 李本에서는 아예 자라의 抗辯이 한 마디도 삽입되지 않고 있다.<sup>27)</sup> 따라서 申本에서의 주부의 성격 창조가 李本의 그것 보다는 다소 合理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대비할 곳은 結末부분이다. 이 부분에 나타난 申本에서의 토끼의 자라에 대한 말을 보자. “네 이놈 자라야 네 罪目을 議論하면 殺之無惜 꽤 씹하다……五臟에 붙은 肝을 어찌 出納하겠느냐……死地同苦 하였기에 목숨 살려 보내주니, 그리 알고 돌아가되 좋은 藥 보내기로 내 王에게 許諾하니 짐잡은 내 道理에 어찌 食言을 하겠느냐. 나의 똥이 壯히 좋아 淸熱을 한다 하고 사람들이……”(pp. 319~321) 이렇게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 마음껏 주부를 꾸짖어 주지만 주부는 한 마디의 대꾸도 못한 채 토끼가 시키는 대로 그의 똥을 싸가지고 간다.

27) 李本에서의 자라의 無抗辯은 缺張부분에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前後 文脈으로 보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李本에서는 좀 다르다. “이우미훈 자라야 되더 오장륙부의 속  
 혼간을 어이출납하리오……네 나뭇업고 만리창파에 왕릉흔든 슈고물 생  
 각지 아니치못하야 간명을살녀 보내노니 썩니도라가……너의 일국군신이  
 모다나의 묘계에속으니 가위국중이 허무라 흐리로다”(pp. 107—108)하  
 고는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자라는 茫然自失,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忠誠心の 不足을 탓하고는 自決하려 한다. 이때 浦國人 華佗가 나타나  
 一粒仙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兩本에서 龍王 病에 대한 치유책은 다 제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看過  
 할 수 없는 점은 申本에서의 主簿의 태도가 愚直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면 李本에서의 그것은 愚直을 넘어서 어떤 極限의 狀況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申本에서는 현실적으로 愚昧 忠直한 臣下의 모습을 諷  
 刺했다면 李本에서는 忠誠至極하여 生命까지도 王을 위하여 바치는 臣下  
 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覺醒에 따라서는 李本의 자  
 라가 더욱 愚昧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生命까지 바치는 忠誠心  
 은 우리에게 어떤 悲壯感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忠誠心を 愚昧하다고  
 는 할수 없을 것 같다. 「토끼傳」에서의 主簿의 屬性은 ‘忠誠心’이라 하  
 겠는데, 이런 뜻에서 이 대목에서의 主簿의 性格創造는 申本에서 보다  
 는 李本에서 더 優越함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 (2) 토끼

토끼가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作品의 後半부대인데 처음 主簿를 만날  
 때에는 별 智慧도 口辯도 없는 타입으로 그려지다가 龍王 앞에서의 生命  
 을 건 現場에서는 능란한 지략가로 또는 達辯家로 그려짐에는 兩本이 大  
 同小異하다. 그러나 細部的인 面에서의 表現技法과 行爲에는 큰 差를 보  
 이고 있다.

첫째는 토끼가 자라를 첫 對面할 때 나타난다. 申本에서는 主簿가 ‘青  
 山石徑幽僻處’에서 “여보 兎生員”하고 몇 번을 불려서야 겨우 對面을 할  
 수 있도록 토끼의 태도를 慎重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토끼는 主簿를

‘今時初見’이라는 것과 이상한 생김새라는 이유 때문에 좀처럼 接近을 許하지 않는다. 그러나 李本에서는 “토선생 이덕에 드리게시오” 하는 자라의 말에 토끼는 급히 뛰어나와 對面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申本에서는 多少 신중한 토끼像을, 李本에서는 多少 輕率한 토끼像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다음은 토끼가 자라로부터 誘惑을 당하는 장면에서 差異가 드러난다. 申本에서는 토끼가 자라에게 完全히 說服되어 水國을 向하던 中 여우의 囑방을 받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토끼는 자라의, 자기와 여우의 사이를 離間 붙이는 말에 여우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쉽게 넘어간다. 李本에서는 여우가 아닌 너구리의 방해로 받는데, 여기서 자라는 離間 붙이는 말이 아닌 너구리 말의 不當함을 說得力 있게 反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위 첫 對面의 경우와는 反對의 토끼像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토끼의 龍宮生活에서다. 첫째, 申本에서의 토끼의 龍王에 對한 言辭가 그것이다. “할 말씀은 많사 오나 大王 같은 저 地位에 無識함을 웃나이다.……小兎의 肝 出入은 樵童牧豎 다 아는데 大王 혼자 모르시니 그리 無識하시니까”(p. 305) 이러한 言辭는 君王에게 敢히 드릴수 없는 불손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李本에서의 토끼의 言辭는 君臣의 禮道에 어긋남이 없는 鄭重한 말씨로써 나온다.

다음은 龍王을 一旦 說得하고 난 다음의 토끼의 行動에 申本에서는 여유를 보이나 李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申本에서의 토끼는 君王으로부터 大宴 排設을 받고 人間에서 보지 못하던 온갖 風樂 무용을 구경하고 珍羞盛饌을 대접받고 女色까지 즐기는 여유를 갖는다. “輕妄한 토끼놈이 仙酒를 많이 먹고 醉興이 陶陶하여 仙女들과 對舞하며 의뭉한 말을 하여 「水宮의 食口들이 모르니까 그러하제 내 肝은 姑捨하고 나고 입 한번 맞추어도 三四百年 例常살제」 仙女들이 곧이 듣고 다투어 달려

들어 토끼하고 입맞춘다. 온갖 장난 다한 然後에……”(p315) 이처럼 마음껏 즐기고도 주부를 골려주는 여유까지 보인다. 육지로 돌아올 때는 자라 등에 얹혀 名勝地 案內까지 받으면서 의기양양 돌아온다. 李本에서는 大宴 排設을 받는 것은 同一하나 행동하는 것은 判異하다. “이제 특기 술이반취 하야 너염에혜오더 너간을 즐지라도 죽지아니힐것호호면 이곳에서 늡으리라”(p. 104) 하고는 別殿에 들어 “밤이식도록 잠을일우지 못호고”(p. 106) 不安에 휩싸여 있다가 이튿날 자라 등에 업혀 급히 돌아오고 마는 것이다. 용궁을 좋게 생각은 하면서도 여유가 조금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申本에서의 토끼像은 뛰어난 戰略, 智略家로서의 모습으로 부각되었고 李本에서는 보통의 平凡한 水準을 넘지 못하는 智略家로서의 모습에 그쳤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結末 부분에서 토끼의 行動에 兩本이 差가 난다. 申本에서는 陸地에 當到한 토끼가 자기의 便을 누어 주부에게 주어 용왕의 병을 낫게 하는 이유를 보이나 李本에서는 到着하자마자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윗 대목에서 고찰한 바와 통하는 現象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토끼의 性格創造는 윗 대목과 一致한다고 할 수 있겠다.

### (3) 龍 王

龍王의 人物됨은 兩本の 단락 1)에서 부터 나타나는 바, 申本에서는 靈德殿 落成宴 끝에 得病하지만 李本에서는, 偶然히 得病하는 것이다. “二三日이 지나도록 질끈 놀아” 주다가 病에 걸리는 것과 우연히 병에 걸리는 것과는 王으로서의 위신에 크게 關係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申本에서는 처음부터 王에 對해 批判的인 의도를 運轉 중에 보이고 있으나 李本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兎肝을 求하기 위한 御前會議를 召集했을 때도 이러한 申本의 의도는 계속 연장되었다고 볼 만하다. 申本에서는 御前에서 臣下들이 다투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이 王을 위한 싸움이라기 보다 臣下들 개인의 安



술을 도모하는 싸움이라고 볼 만하다. 따라서 王으로서의 威儀는 여지 없이 失墜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李本에서는 반대로 臣下들이 서로 가겠다고 激烈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되므로 王의 威嚴은 維持되고 있다고 해야겠다. 申本과 李本에서 차례로 해당장면을 한 대목씩 보도록 하겠다.

工部尙書 여짜오되, 「토끼가 하는 것을 얼굴은 모르오나, 史記로 보올진데 中山의 所産이라, 蒙恬의 옛 일같이 에워싸고 잡는 수니, 精兵 三千 내어 주어 大將 고래 보내소서」

고래가 憤을 내어 出班하여 여짜오되 「水陸이 달랐으니 水中에 있던 軍士 陸戰을 어찌할지 저런 所見 가지고도 文官을 藉勢하여 좋은 벼슬하여 먹고, 조금 危殆한 일이면, 虎班에게 밀려 하니 배속에 있는 것이 부레풀뿐이기로, 變通 없이 하는 말이 膠柱鼓瑟 같사이다」(申李 pp. 259-261).

문득호신하—출반주왈 신이비록 지조—업스오나 혼빈인간에나가 목기틀사로 잡아 오리이다. 모다보니 이눈천년묵은 문어니……문어죽시하직하고 발정코자 하더니 문득반부중으로 소호신하—내다라 문어틀터축왈 네아모리 괴골이장터하 나 소견이넉지못하야 티공을일오지 못홀거시오……인간나갈성각말나하거날 모다보니 이눈수천년묵은자라 별주부—라 문어—자라의말을듯고 분긔터발하야 두 눈을부릅쓰고 여똥갈내드리물영병티고 검붉은티골이물 설설흔들면서……(李本 pp. 15-16)

마지막으로 龍王이 등장하는 장면은 잡혀온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대목이다. 여기서는 兩本의 두드러진 差異가 없다. 狡猾한 토끼의 口辯에 감쪽같이 넘어가는 과정이 비슷하고 그 후의 태도도 兩本이 꼭 같다. 다만 토끼와의 대화에서 이모저모로 따져 묻는 용왕의 질문이 李本보다는 申本이 조금은 辛辣하다는 느낌은 갖게 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大差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의 논의는 여기서 略한다.

#### 4. 文體面

申在孝의 「兎籠歌」와 李海朝 「繁主簿傳」의 文體面에서의 差異를 우선 音數律面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兩本의 作品 全體를 對象으로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너무나 煩雜한 작업이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아

(1) 序 頭<sup>28)</sup>

이본	음수율	3·4조	4·4	4·2	4·3	4·5	2·3	2·4	2·5	2·0	3·3	3·5	3·0	3·7	5·2	5·3	5·4	5·6	3·2	3·4	5	계	
	토별가	77	24	1			9	1	1		1			1				1				115句	
	(%)	(67)	(20.9)								14(12.1)										(100)		
	별주부전	25	18	1	3	2	10	1	1	3	4	9	6	3	1	4	2	2	5	2	5	2	109句
	(%)	(22.9)	(16.5)								66(60.6)										(100)		

(2) 中 間<sup>29)</sup>

이본	음수율	3·4조	4·4	4·2	4·3	4·5	4·6	2·3	2·4	2·5	3·3	3·5	3·6	3·7	5·3	5·4	5·5	6·5	2	3	4	5	계	
	토별가	49	56		3			3	3	3	1	1		1									122句	
	(%)	(40.2)	(45.9)								17(13.9)										(100)			
	별주부전	12	16	3	5	3	6	4	7	1	3	10	8	1	6	5	4	2	1	1	5	4	2	117句
	(%)	10.2)	(13.7)								89(76.1)										(100)			

28) 申本, 卷음부터 p. 255의 14行까지

29) 申本, p. 287의 1行부터 p. 289의 9行까지

李本, 卷음부터 p. 3의 7行까지

李本, p. 54의 4行부터 p. 57의 5行까지

3. 結 木<sup>30)</sup>

이본 음수율	3-4조													계									
	4·4	4·3	4·5	4·6	4·7	2·3	2·4	2·5	2·6	3·3	3·5	3·6	3·7		5·3	5·4	5·5	5·6	5·7				
토 별 가	53					3	1			5	2			4					118句				
(%)	(42.4)					15(12.7)													(100)				
별 주부전	13	6	13	5	2	1	6	9	8	3	2	10	6	1	3	4	2	1	1	7	7	4	117句
(%)	(11.1)	(5.1)	98(83.8)																			(100)	

30) 申本, p. 319의 9行부터 끝까지      李本, p. 107의 1行부터 끝까지

작품의 序頭와 中間 部分과 結末 部分을 對象으로 각각 100여句 이상을 조사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3·4조 내지 4·4조의 운율을 우리 詩歌의 기본적 형태로 보고 그 외의 것은 非韻文的 形態내지 散文的 形態로 본다면<sup>31)</sup> 申本이 李本보다 훨씬 '시가적'이고 '운문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을 다시 3·4조와 4·4조를 한 묶음으로 하여 '운문'이라 하고 나머지의 것들을 모두 합쳐 한 묶음으로 하여 '산문'이라고 하여 다시 표를 작성하면 아래표와 같다.

## (4) 序 頭

이본	文種	운 문	산 문
토 별 가		87.9%	12.1%
별주부전		39.4%	60.6%

## (5) 中 間

이본	文種	운 문	산 문
토 별 가		86.1%	13.9%
별주부전		23.9%	76.1%

## (6) 結 末

이본	文種	운 문	산 문
토 별 가		87.3%	12.7%
별주부전		16.2%	83.8%

위의 (4)(5)(6)을 다시 한 묶음으로 하여 全體의 平均을 잡아보면 아래표와 같다.

## (7) 全 體

이본	文種	운 문	산 문
토 별 가		87.1%	12.9%
별주부전		26.5%	73.5%

申在孝의 「토별가」는 판소리 唱本 그대로라고 볼 수 있으므로 韻文性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필자가 前掲의 논문에서 조사한 바, 申在孝의 다른 판소리 사설들의 韻文性도 이와 비슷했다.<sup>32)</sup> 그러나 李

31) 拙稿, p. 38 참조.

32) 春香歌(男唱)—91.5%, 沈清歌—84.4%

海朝의 경우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비율은 그의 다른 판소리계 작품에서 나오지 않았다.<sup>33)</sup> 「별주부전」의 26.5%의 비율은 대단한 변화(발전)로 보인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 完全한 散文으로 보아도 좋으리라고 思料된다.

李海朝는 名唱들의 판소리를 소설로 刪正함에 있어서 이 「繁主簿傳」에 와서야 文體上으로 비로소 小說다운 小說로 改作했다고 하겠다. 사실 그의 다른 세 작품(육중화, 강상련, 연의 각)은 文體上으로만 본다면 小說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sup>34)</sup>

다음으로는 插入歌謠가 兩本에서 어떻게 다르게 活用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겠다.<sup>35)</sup> 李本의 단락 4)에 나타나는 바, 伍子婿가 龍王에게 兎肝을 일러 주기 전에 늘어놓는 수십 가지의 병과 약의 종류는 오늘날도 그대로 漢藥界에서 쓰이는 處方이라고 한다. “감귀에는 패독산이오”로 시작하여 “련주창에는 치즈청간탕이 단방이오”(p. 13)에 이르기 까지 무려 78가지나 들고 있다. 이는 판소리 12 마당 中에서, 同種이나 同系의 사물을 열거하는 면에서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된 예가 아닌가 본다. 「春香傳」의 妓生點考 장면에서도 六堂本의 49명 열거가 최고의 숫자다. 이 대목이 申本에서는 削除가 되어 있다. 申在孝는 이 千病萬藥 辭說이 길게 부연될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

다음으로는 申本의 단락 3)에 나타나는 바, 용왕이 兎肝 이야기를 仙官으로부터 듣고 滿朝百官을 불러들이는 소위 어전회의 대목이다. 각 물고기 이름 앞에 벼슬 이름을 붙여 열거하고 있다. 例를 들면, “左丞相 거북, 右丞相 鯉魚”式으로 하여 32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대목이 李本에서는 삭제가 되어 문어와 자라의 論爭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타령—83.1% 등으로 밝혀졌다.

33) 獸中花—74.6%, 江上蓮—79.9%, 燕의 脚—50.3% 등으로 나왔다.

34) 拙稿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35) 金東旭 교수는 삼입가요물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76, p. 453) 本稿에서는 兩本에서 차이가 나는 것만을 골라 논의 하겠다.

다음으로 申本의 단락 8)과 李本의 단락 7)에 보이는 토끼畫像 노래의 差異다. 이 노래는 一石 先生에 依하면 「토끼傳」에서 完全히 獨立되어 一篇의 歌詞로 되어 오늘날까지 불리어 진다고 한다.<sup>36)</sup> 이 노래가 申本에서는 짝막하게 축소되어 있는데 李本에서는 文房四友 辭說로 시작하여 아주 장황한 歌詞로 부연되어 있다. ‘귀’ 하나를 形容하는데 一面半을 쓰고 있다. 정확한 3·4조 내지 4·4조로 이어 가면서 귀, 눈, 코, 입, 털, 발, 순서로 그리고 있다. 이는 바로 판소리에 있어서 典型的인 插入歌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다음으로 兩本의 단락 14)에 나타나는 주부가 토끼를 만나 수작하는 장면이다. 申本에서는 有名한 漢詩 한 句節씩을 引用하면서 山林風月을 간단히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토끼가 주부에게 山中生活의 즐거움을 자랑하고 있는 대목으로 이것이 李本에서는 ‘봄경개’ ‘하경’ ‘츄경’ ‘겨울경기’ 등으로 나뉘어 申本보다 길게 부연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라가 토끼에게 水宮生活을 자랑하면서 늘어 놓는 水宮景概 辭說도 이어서 부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李本의 단락 16)에 보이는 漢詩와 申本의 단락 19)에 보이는 地名 새(鳥)의 문답사설이다. 李本의 漢詩는 자라가 토끼를 등에 업고 용궁으로 向할 때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이와 같은 漢詩는 李本의 단락 8)에도 나왔었다. 이러한 漢詩들이 申本에서는 쏘려 나와 있지 않다. 反面에 申本의 地名, 새 문답사설은 李本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갖은 歡待를 받고 주부를 호령하면서 육지로 귀환할 때 주고 받는 사설이다.

以上 兩本에 쓰인 插內歌謠 全體를 通觀할 때 李本이 申本보다 훨씬 많은 수와 긴 노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申在孝는 「春香歌」등의 다른 판소리에서처럼 本 「兎兎歌」에서도 많은 插入歌謠를 縮小 除外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6) 李熙昇, 國文學研究鈔, 乙酉文化社, 1959, pp. 3-4 참조

## III. 綜合 解釋

## — 結論을 兼해서 —

위에서 分析한 申在孝의 「兎鼈歌」와 李海朝의 「繁主簿傳」과의 諸側面에서의 차이점을 綜合하면서 그 社會史的 意味를 高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申本에 나타난 特色은 李本에 比해 政治的인 諷刺意識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魚族會議나 毛族會議 등에서 그와 같은 점을 엿볼 수 있는데 各 臣下들의 자신의 安逸만을 위하여 벌이는 攻防戰이나 용왕의 無能함 등의 노출은 조선 후기 사회의 政治的 腐財相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特히 毛族會議에서 너구리의 사냥개에 대한 비판은 尙斂誅求를 일삼는 貪官汚吏를 겨냥한 發言이라 볼 수 있고 꿈의 直言은 人間社會에 대한 直接的 비판이라 볼 만하다.

다음으로 申本은 李本에 比해 教訓的 意味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은 特히 결말 부분에서 보여 주는데, 토끼가 자기의 同族들에게 “벼슬 생각 부디 말”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는 부질없이 벼슬이나 꿈꾸거나 분수에 넘치는 虛慾이나 부리는 人間들을 깨우치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李本에서 보이는 特色을 들면 申本에 比해 그 構成面에서 다소 合理性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한 醫員의 來診 장면에서나 자라가 육지에나 도착하기 전 名士들을 만나는 장면 등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보인다. 그리고 李本에서는 판소리의 特性으로 볼 수 있는 喜劇美나 猥褻性 등이 申本에 比해 많이 減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李海朝의 다른 판소리系 作品들과도 一脈相通하는 사실이기도 하다.<sup>37)</sup> 이에 比해 申在孝는 本 「토별가」에서 그러한 성질을 몇 대목에서 거리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37) 拙稿, p. 128 참조

結末 부분에서, 李本은 忠誠心을 鼓吹하는 데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申本은 토끼의 뛰어난 슬기를 보여주려는 데 목표를 둔 것 같다. 前述한 바, 李本에서는 자라가 산속으로 달아나는 토끼를 보고 자신의 忠誠心의 不足을 한탄하고 自決하려는 순간에 一位道人이 나타나 “정성이 지극하기로 내변명을맞즈와 일립선단을 쥘노니 너는빨니 도라가 용왕의 병을 곳치게하라”(p.109)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토끼의 슬기’보다는 ‘자라의 忠誠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申本에서는 토끼의 役割이 좀더 강조되고 있으므로 ‘자라의 忠誠心’ 보다는 ‘토끼의 슬기’를 그 主題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토끼傳」의 주제는 異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一律的으로 ‘토끼의 슬기’로만 專斷해 버릴 수는 없다고 思料된다.

다음으로 兩本이 人物 性格을 그려감에 있어서 자라의 忠誠心 創造는 申本보다 李本에서 잘 그리고 있다고 보나 토끼의 智謀, 智略의 묘사는 申本이 훨씬 우수하다. 이것은 上述한 바, 兩本 主題의 相異에서 오는 자연스런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용왕의 경우도 申本에서 훨씬 愚鈍하고 威嚴을 잃고 있는 王으로 그리고 있다.

文體面에서의 兩本の 音數律은, 申本의 경우 판소리의 韻文性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反하여 李本의 경우는 完全한 散文性으로 發展해 있음을 보았다. 이는 李海朝의 「鱉主簿傳」이 文體上으로 볼 때 판소리 唱本 또는 口述本이 아닌 하나의 完全한 小說本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李海朝는 名唱들의 판소리를 小說化함에 있어서, 「獄中花」나 「江上蓮」의 경우 小說定着本이라 보여지는 京板本이나 完板本보다도 그 散文化的의 정도를 오히려 退步시켰고 「燕의 脚」의 경우는 그 정도가 비슷했는데<sup>38)</sup> 이 「鱉主簿傳」만큼은 一般 小說水準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삼입가요도 李本에서는 擴大 敷衍시키고 있다. 삼입가요는 판소리 뿐 아니라 小說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삼입될 수 있다고 본다.

38) 拙稿, p.129 참조



以上을 종합하여 보건대 申在孝의 「兎籠歌」는 現實 批判意識을 가지고 특히 토끼의 知戀에 力點을 두고 構成되었으며 판소리의 음수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판소리 사설이며 李海朝의 「繁主簿傳」은 開化意識 따위의 反映은 없으나 比較的 必然性 있는 구성법을 쓰고 있으며 특히 자라의 忠誠心을 강조하고 있으며, 文體上으로는 完全히 散文化한 小說이라고 할 수 있겠다.